2025-07-07

HI FX Brief

관세 분수령

FX Brief

[경제] 박상현 2122-9196 shpark@imfnsec.com

주간 동향: 고용 서프라이즈로 달러 낙폭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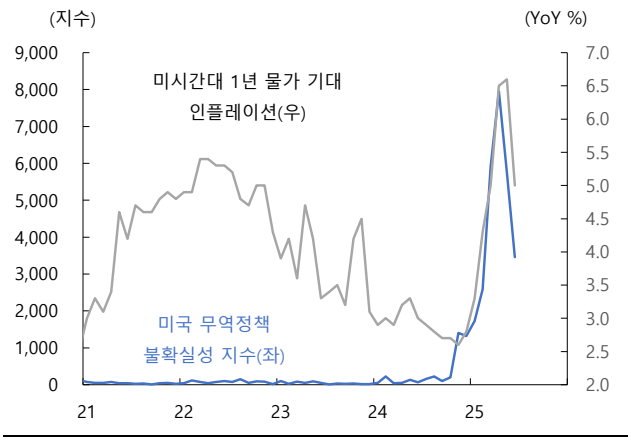
-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의장 흔들기, 미국-베트남 무역합의, 미국 경제 지표 부진,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서명 및 영국 국채 금리 급등 등으로 달러화 약세폭이 확대되었지만 6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화 낙폭이 축소됨
- 유로화 가치는 주 중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미국 고용 호조 영향으로 강세 흐름이 다소 주춤해짐
- 엔화는 강보합 흐름을 보임. 달러화 약세와 미-일간 무역협상 불확실성 등에 따른 경계감으로 엔화는 전주대비 보합세를 유지함
- 역외 위안화는 5주 연속 절상 흐름을 이어감. 달러 약세 여파,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미-중 갈등 그리고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의지 등에 힘입어 위안화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
- 호주달러도 강세를 보임. 달러 약세, 위안화 강세 및 일부 원자재 가격 강세 등이 호주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함
- 달러-원 환율은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주초 하락 이후 상승세가 이어짐. 신정부 정책 기대감 약화 및 미국과의 관세협상 경계감 등으로 달러-원 환율은 전주대비 소폭 상승함. 1350~1,360원대를 중심으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감

	7월 4일 종가	전주 대비 (%)	전년말 대비 (%)
달러화 지수	97.2	-0.23	-10.42
유로-달러	1.178	0.51	13.75
달러-엔	144.5	-0.12	-8.10
역외 달러-위안	7.16	-0.13	-2.38
호주달러-달러	0.66	0.41	5.95
달러-원	1,362.5	0.08	-7.46

금주: 관세 분수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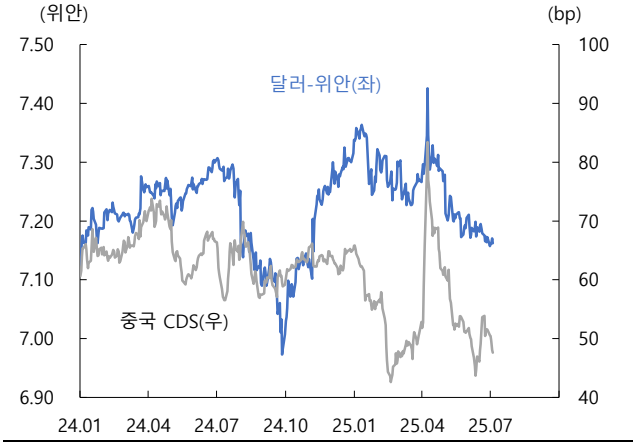
- 7월 8일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전후로 한 각종 뉴스 흐름이 달러화 등 주요국 통화가치를 좌우하는 한주가 될 것임.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 시한을 재차 유예한다면 달러화의 추가 약세가 예상되지만 주요 교역국에 대해 고율 관세율을 복원시킬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 강화로 달러화는 강세 반전할 공산이 높음
- 달러-원 환율 역시 관세발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7월 금통위 결과는 환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. 이번주 달러-원 환율 밴드는 1,340~1,380원으로 전망함

그림1. 관세 불확실성은 완화되는 분위기지만 7월 8일을 전후로 한 관세 뉴스 등이 중요한 변수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2. 위안화 가치가 완만하지만 꾸준히 절상되고 있는 추세임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Compliance notice

-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